|  |  |
| --- | --- |
| 신청인 | 김성은 |
| 신청일 | 2017.12.19 |
| **연대 단체 이야기** |
| 단체(활동가)명 |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
| 단체 정보 |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9-12 / 이원재, 정기황 공동대표  |
| 단체 소개 |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은 공유지의 공공성과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의 베이스캠프입니다.  |
| 단체 주요활동내용 | 경의선공유지 ‘경의선광장’의 일상적인 활동들1. 공간보수 및 정비컨테이너, 포장마차 등 가건물로 구성되어있는 경의선공유지의 시설이 노후되어 정기적으로 공간을 보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전기량과 겨울에는 동파되는 수도 때문에 시시때때로 전기공사와 수도공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 공간에서 아현포차 이모님들이 장사를 하고, 공방을 운영하고, 공연 및 강좌를 여는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용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2. 마켓운영예전 ‘늘장’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장터를 운영한 것을 이어 지금도 경의선공유지지지마켓 ‘경의선 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의선 광장’ 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운영하는 시민시장으로서 시민의 힘으로 공간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토론회 및 포럼공유, 공유지, 공공재 등의 키워드로 정기적으로 토론회, 포럼을 진행하여 공유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공유지 운동을 알리는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4. 26번째 자치구 운동강제철거를 당해 장사를 하다가 혹은 살던 집에서 쫒겨난 사람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25개의 기존 자치구에서 책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26번째 자치구를 선언했습니다. 아현포차, 가든파이브, 뜨거운 청춘 등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의 임시거처로 경의선공유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
| 단체와의 인연 |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활동가였고,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26번째 자치구의 구민이기도 합니다.  |
| **지구분담금 이야기** |
| **신청금액** | 150,000원 |
| **\* 지구분담금 운용계획**(지구 분담금 신청사유와추후 연대 활동 계획) | 경의선공유지 내 기린캐슬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고, 그 동안 공연, 강좌, 토론회, 포럼, 김장행사 등 여러가지 활동들이 진행되었던 공간입니다. 겨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1-2월 난로의 연료비용으로 빈고의 지구분담금을 신청합니다. 등유 1통 : 25,000원\*6주 |
|
|
| **\* 전달방법**(가능하면,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는 것이 좋아요) |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
| 공동체 은행 빈고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함께 연대할 단체를 찾고, 마음을 나누는데 앞장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빈고와의 약속] 지구분담금 이용 후, 1달 이내에 빈고에 **\*사항**을 공유해 주셔야합니다. 공유방법 : 빈고 게시판이나 빈고 메일로 (가능하면) 사진을 첨부하여 전달해주시면 더욱 즐거워요 : )약속 안 지키시면, 다음 번 지구분담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